



현대 일본 생활세계 연구의 세계적 거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년 뉴스레터
12월호

차례

01

연구활동
연구집담회

02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지역전문가 양성

03

학술교류
SNU-Yale
합동 워크숍
연구소 신입연구자
연구활동 동정

연구활동

○연구집담회

■ 제 10회 연구집담회 요약문

주제: 후조시(腐女子)는 말할 수 있는가 - '여자'오타쿠의 발견
발표자: 김효진(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토론자: 신하경(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일시: 2009년 12월 9일(수), 오후 4시 - 6시

2000년대 이후 일본의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남성간의 연애를 테마로 한 창작물(야오이/ Boy 's Love)을 애호하는 여성 혹은 여성 오타쿠를 의미하는 용어인 후조시(腐女子)의 대두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여자' 오타쿠의 발견이라는 맥락 및 <이웃집 801양>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또한 이런 후조시의 대두 및 성향을 상징하는 사례로 <이웃집 801양>을 메타 BL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후조시의 발화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오타쿠들 본인에 의한 오타쿠론이 주목을 받는 한편, 후조시들에 의한 후조시론이 극히 드문 현실은 후조시임을 자인하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존재 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이웃집 801양>이 오타쿠인 남성의 눈에 비쳐진 후조시의 모습을 그려내어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후조시들의 내향성은 전복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동계방학 관계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연구집담회는 2010년도 1학기 (3월)부터 재개됩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 SEOUL NATIONAL UNIVERSITY 151-742 서울 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 02-880-8053 Fax. 02-874-3699 <http://ijs.snu.ac.kr> e-mail ijs@snu.ac.kr

일본연구소 뉴스레터 12월호 통권 29호 ■발행일 2009년 12월 30일 ■발행인 한영혜 ■편집위원 박서영/김유훈/최가영 ■발행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자들에게 올바른 일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일본전문가와 함께 일본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루어 온 일본전문가 전문가 초청 세미나 116회가 열렸다.

■ 제 116회 일본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 : 7세기 동아시아의 격동과 일본국의 성립
강연자 : 이재석 -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일시 : 2009년 12월 9일 (수요일)
(* 발표 주제가 당일 변경됨)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는 수·당이 연이어 건립되고, 고구려 연개소문의 난, 백제 의자왕의 난, 신라 비담의 난 등 쿠데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으며 왜국 역시 을사의 변을 겪는 등 격변하고 있었다. 왜국의 대외노선은 6세기 말과 7세기 초에 걸친 친백제정책을 시작으로, 친신라, 친고구려, 친수 정책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특히, 7세기 초반 신라의 외교 노선변화로 왜국과 접근하게 되면서, 왜국 내의 친신라파와 친백제파의 대립이 발생하였다.

소가씨와 효덕정권은 개인권력 투쟁을 넘어, 대외노선의 선택과 유지에 따른 득실관계로 대립하였다. 또한, 대외관계의 관심사는 선진문물 유입여부에서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로 변화되었다. 백제멸망 (660년) 이후, 백제 부흥을 돕기 위해 파병한 왜가 백촌강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군사적 비상전시체제로 돌입하여, 국가체계 정비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왜국은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일본 최초로 체계화된 고대국가가 성립되었다.

○지역전문가 양성

■ 2009년도 대학원생 일본현지 자료조사 보고회

본 연구소가 주관했던 2009년도 대학원생 일본현지 자료조사의 보고회가 11월 30일 교수학습센터(61동) 121호에서 열렸다. 일본연구소 한영혜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6명의 발표가 이어졌다. 각 발표자와 주제는 오른쪽과 같다.



- “사회적 약자에서 자립적 주체로 : 현대 일본사회의 노년 에 대한 이미지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한 비판적 연구”
발표 : 김희경(인류학과 박사수료)
토론 : 정진웅(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일본형 복지고찰 : 개호보험(介護保険)의 창설과 일본형 복지의 재편”
발표 : 배유진
- “18세기 조선통신사 필담자료 조사의 성과와 과제”
발표 : 이효원(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토론 : 김수영(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 “일본 출판경찰의 법적근거와 검열 - 1937년 이전을 중심으로”
발표 : 이민주(언론정보학과 박사수료)
토론 : 김인수(사회학과 박사수료)
- “한일간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BK21사업과 COE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표 : 송선영(교육학과 박사수료)
토론 : 김미란(한국교육개발원 대입제도연구실 연구위원)
- “다이도쿠지(大德寺) 신주안(真珠庵) 장벽화(障壁畵) 연구 : 그 제작배경과 의미를 중심으로”
발표 : 이원진(고고미술사학 석사과정)
토론 : 유재빈(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학술교류

○동아시아학 공동연구를 위한 SNU-Yale 합동 워크샵

동아시아학 공동연구를 위한 서울대-예일대 워크샵이 12월10일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KIKS)에서 열렸다. 워크샵에는 동아시아학을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이 참가하여 현재 서울대 및 예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관련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Tendencies in East Asian Studies at SNU 라는 주제 하에 예일대 John Treat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가 발표를 하였으며, 예일대 측에서는 서울대 중국연구소 정재호 교수를 좌장으로 예일대 동아시아 언어 및 문학부 John Treat 교수와 같은 학부 Jing Tsu 교수의 발표를 마친 후 서울대-예일대 미래 공동연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워크샵에서 예일대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모두 포괄하는 Council for East Asian Studies가 중심이 되어 서울대와의 교류를 추진할 것, 서울대는 동아시아 관련 연구소들이 예일대와의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대표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교류를 위한 contact point를 만들 것 등을 논의하였다.

일본연구소 신입연구자

○HK연구교수 (1월 신규채용)

일본연구소 HK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1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HK연구교수가 새로 임용될 예정이다.



박정진 - 연구분야: 정치학(국제정치), 지역학(일본, 북한)

- 도쿄대학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 (학술박사, 지역분과연구)
- 주요 논문
 - 帰国運動とはなんだったのか (2005)
 - 冷戦期日朝関係の形成(1945~65年) (2009)

연구활동 동정

○남기정

논문 게재 : 「韓国から見た日朝関係」 徐勝・中戸祐夫編『朝鮮半島の和解・協力10年—金大中・盧武鉉政権の対北朝鮮政策の評価』御茶の水書房, 2009.11

○김효진

학회 발표 : ‘교마치야 재생운동과 교토의 지역 정체성- 문화관광의 시점에서’ 『관광을 통한 동아시아 문화비교 학술대회』 한국학 중앙연구소, 2009.12.11

○박동성

연구과제 선정 : 한국연구재단 과제 中 2009년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단독연구) 과제 선정 : ‘일본의 도시축제 쿠로후네마즈리(黒船祭)연구’ (지원기간: 2009.11.1-2010.10.31)

○박정진

논문 게재 : ‘한일회담과 북일관계’ 『일본공론』 (2010.1)

○이지선

논문 게재 : ‘중일전쟁 전후 일본의 음반 검열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2009.11)

○일본연구소 평가회

12월29일 국제대학원 GLRoom에서 일본연구소 평가회가 개최되었다. 본 평가회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조직재편, 인력충원, 제도마련, 공간확보 등에 기반구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연구비확충, 연구성과창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교류 확대, 학술지 발간 등 각 사업영역별로 추진실적 및 2010년 계획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